

저자: E. Duncan Hughes

삽화: M. Maillot

각색: E. Frischbutter,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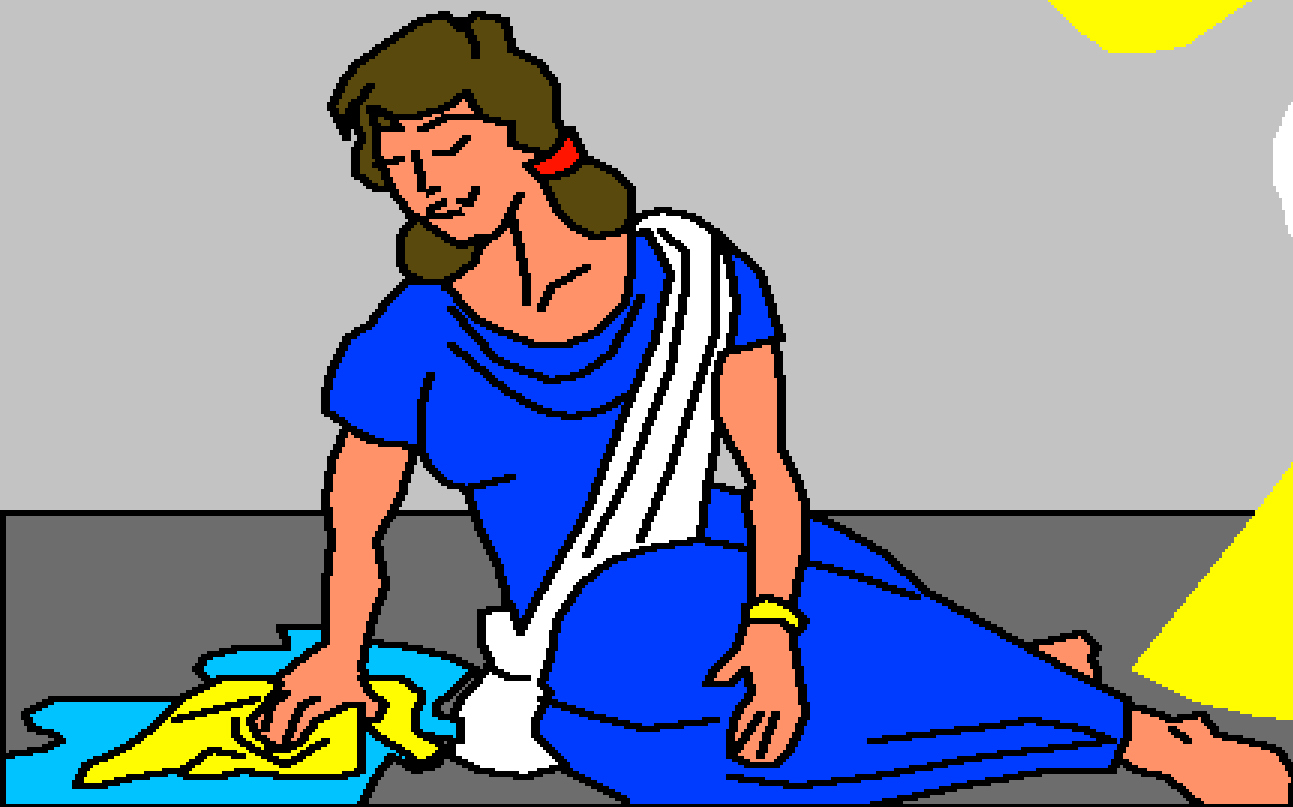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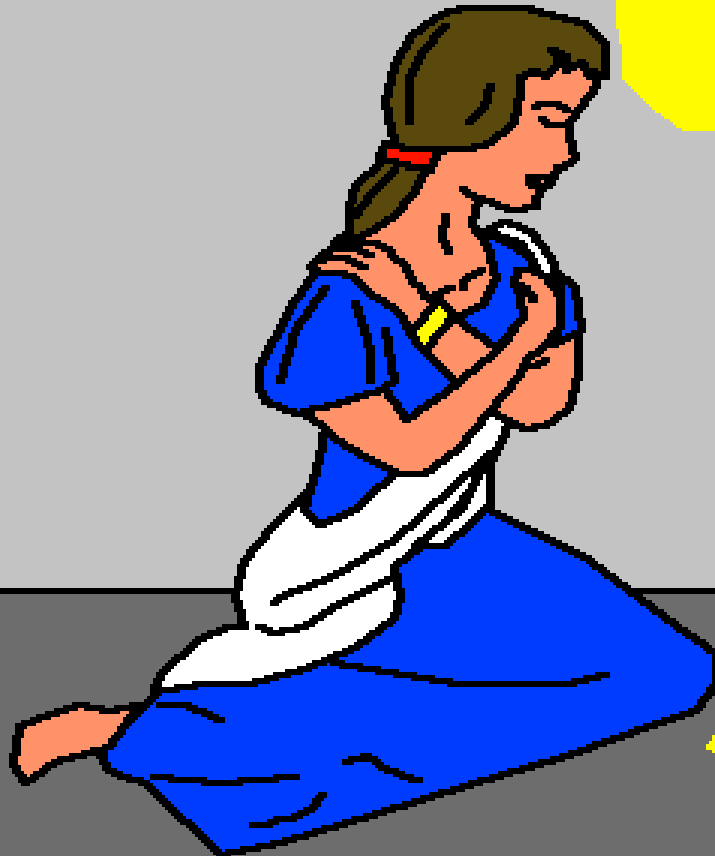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 불리는 젊고 처녀인 유대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 그가 말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놀란 마리아가 물었다,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인 아버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에, 천사가
말하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여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 또한
기적이었다. 후에 곧,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하였다.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정혼자였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슬퍼했다. 요셉은
어떤 다른 이가 아이의
아버지라 생각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요셉은 예수님을 돌볼
마리아를 도왔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그는 또한 그의 나라의 법에 순종했다. 새로운 법 때문에, 그와 마리아는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세금을 내기 위해 남았다.



마리아는 해산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요셉은 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여관들에 방이 남지 않았다.



마침내 요셉은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통 동물들의
먹이를 놓는 곳인 구유에
눕혔다.



가까이에서, 목자들이 자고 있는 양 무리들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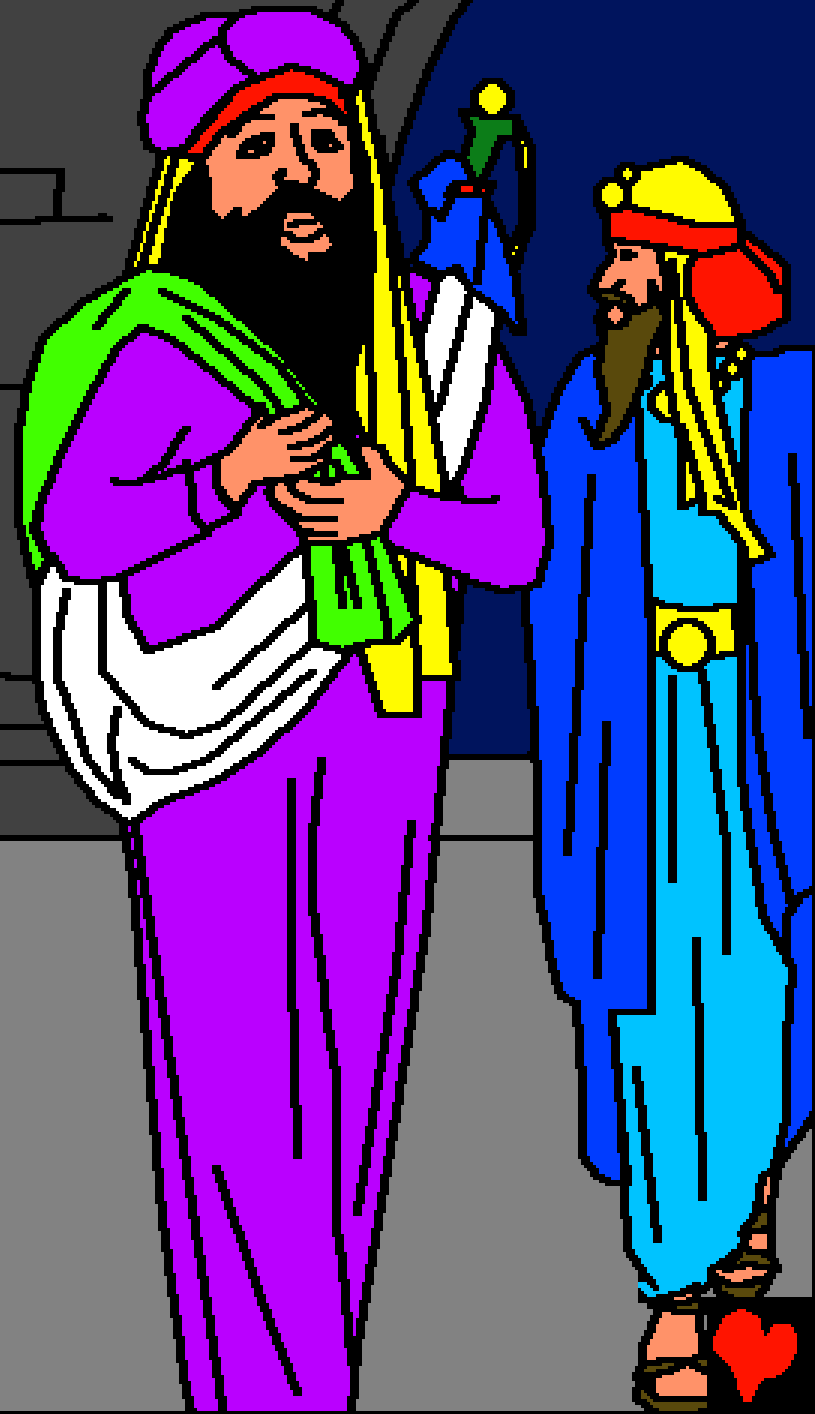
갑자기, 더 많은 눈부신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서둘러
그곳으로 떠났다.
아기예수를 만난 뒤
그들은 그들이 만난
모든 이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말들을
전했다.



사십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예수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갔다. 시므온이
하나님께 아기 예수 보내심을
찬양했던 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인 나이 많은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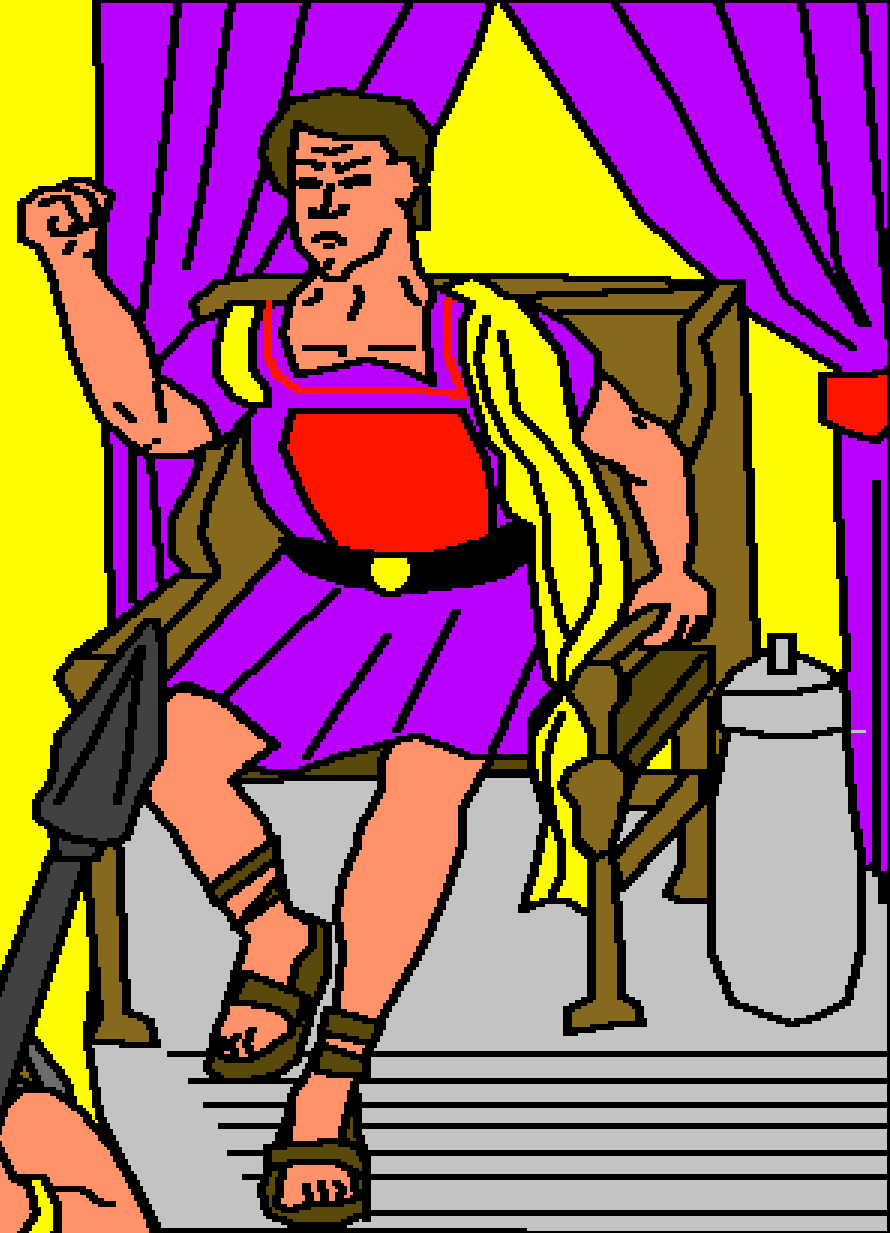
두 사람 모두, 아기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
요셉은 두 마리의 새를
번제로 올렸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번제로 드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였다.



시간이 지난 후에, 특별한 별이 동쪽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물었다.
"우리는 그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에 대해 듣게 되었다. 걱정스럽게, 그가 박사들에게 그들이 아기예수를 찾게 되면 내게 고하라고 말했다. "나 또한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별은 동방박사들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예수와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인도해주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박사들은
아기예수께 비싼 선물들과
향료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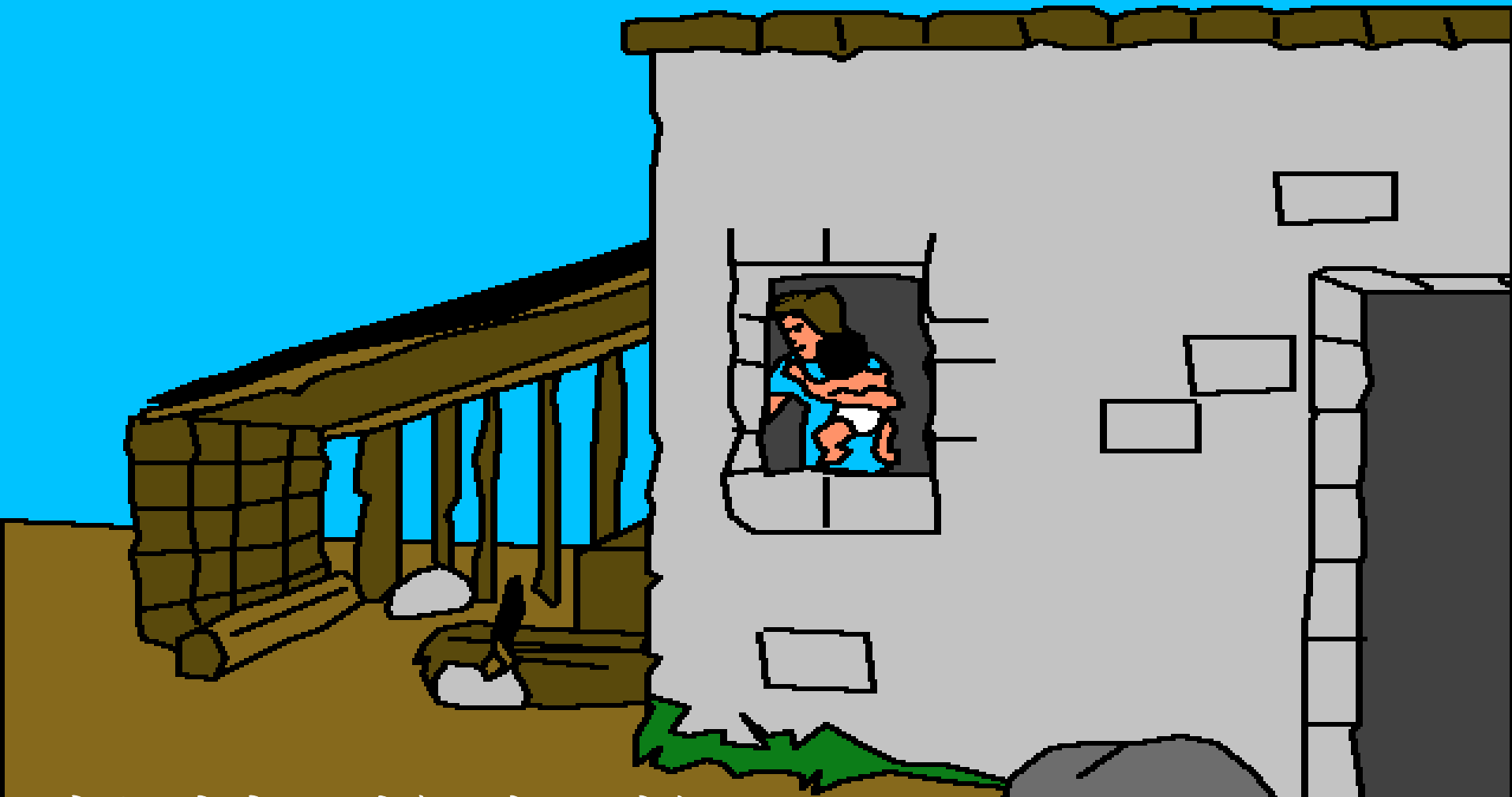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비밀스레 집으로
돌아오라고 주의하셨다.
헤롯 왕은 격노하였다.



아기예수를 죽이려고,
사악한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였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이집트에서 다시
데려왔다. 그들은 갈릴리 해변 가까이에 있는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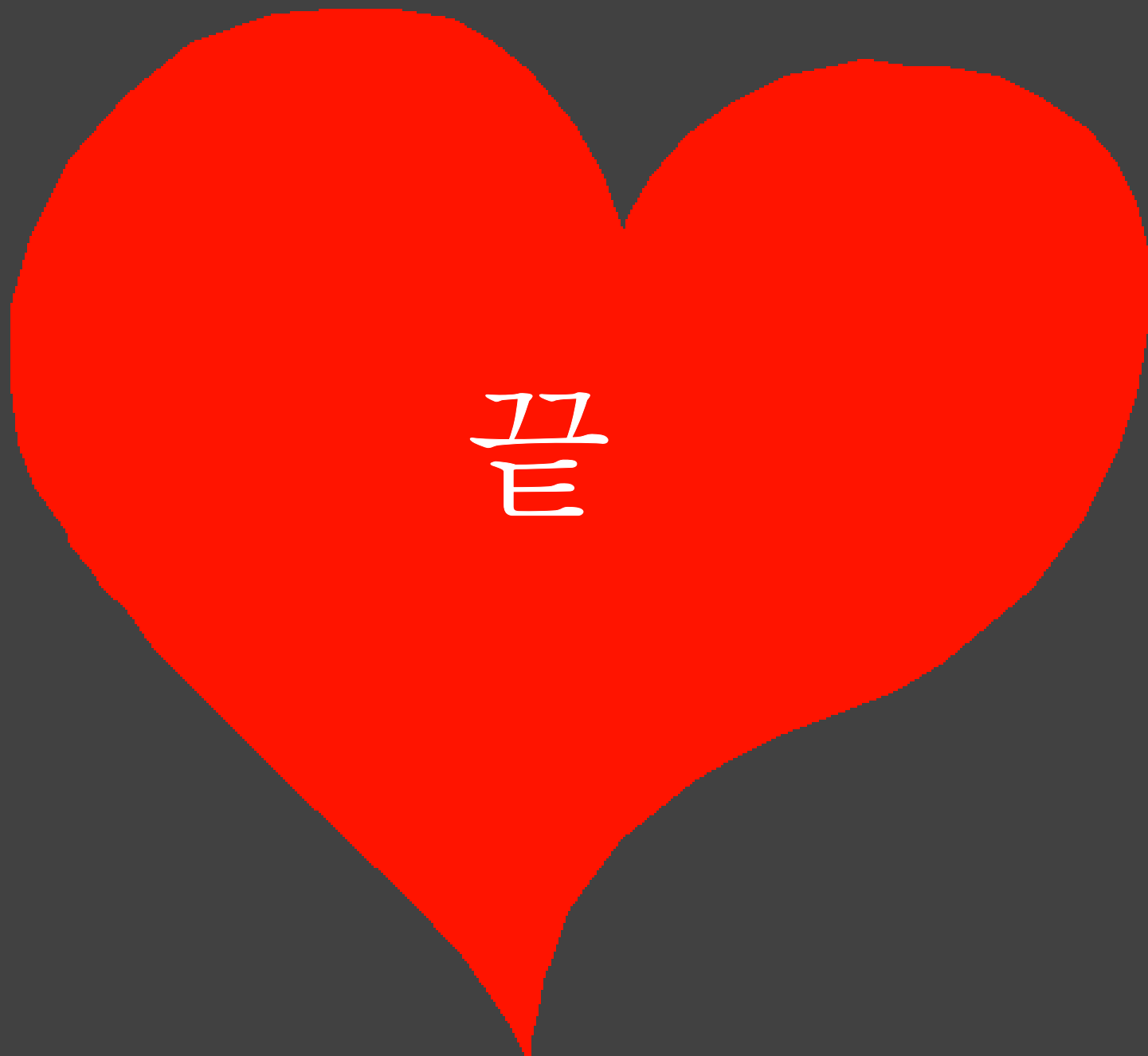
예수의 탄생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 마가복음 1-2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